

“어린이 오케스트라 여수 알리러 유럽감니다”

여수 여도초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 독일 등 5개국 순회 연주 출국

“음악을 통해 세계속에 여수를 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초등학교 대원성 오케스트라인 여수 여도초등학교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자 김문 교장·사진)가 지난 2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흥보를 위해 유럽 순회공연 길에 올랐다.

유럽 순회공연은 형가리 부다페스트를 시작으로 17일 동안 독일 드레스덴,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찰스브록, 슬로바키아 브라디슬라바 등 5개국 6개 도시에서 펼쳐진

다. 여도초 재학생 65명과 현지에서 공부중인 출입생 25명 등 90여명이 함께 유럽인들에게 음악이라는 감동을 선사해 여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린다는 각오다.

지난 2007년에는 여수박람회 홍보사절단 자격으로 파리에서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20개국 120명과 각국 대사 등 500여 명을 초청, 공연을 통해 개최지 결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던 여도초 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유럽 순회공연을 하면서 세계속에 여수와 한국을 알리고 있다.

이는 지난 1981년 여도초에 부임한 이후 유소년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김문(61) 교장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김 교장은 부임 당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철학을 고집하며 오케스트라단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여도초 협약 합주단을 창단했다.

처음 편성된 여도초 오케스트라는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협약(바이올린·첼로·베이스) 합주단으로 출발했다. 이후 수많은 대회

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 1988년에야 비로소 오케스트라 규모인 2관현성(90명 규모) 오케스트라 단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여도초 오케스트라를 거쳐간 인원만도 모두 100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훌륭한 음악가로 자리매김했다.

김 교장과 단원들이 음악 하나만을 생각하며 연간 600~700시간의 연습량을 소화하며 맹훈련한 결과였다.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위해 자비를 들여 세계각지를 176회나 다녀온 김 교장. 단 한 번도 월급봉투를 아내에게 전해주지 못할 정도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케스트라 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2012년 2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유럽 순회공연 길에 오른 것이다.

김 교장은 “이번 순회공연을 통해 여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흥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며 “사실상 이번 순회공연

이 마지막이지만 퇴임 후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결성해 우리 지역의 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지적공 지역본부, 73주년 창립기념식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1일 양기수 본부장, 강기정 국회의원 등 내외빈과 전·현직 임직원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국제보청기, 장애인재활협 공로패



국제보청기(대표 신종인)는 최근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상철)로부터 광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국제보청기 제공>

건보공단 봉사단 복지시설에 위문품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건이강이 복지시설(단장 이주성)은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광주동부지사>

■타계한 한국문학 거목 박완서 작가의 삶

전쟁·분단 아픔 안고 40세 등단 서민 애환 달랜 치유의 이야기꾼

지난 22일 담낭암 투병중 80세 일기로 별세한 박완서씨는 한국 문학계의 거목이자 여성문학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1931년 개성 외곽 지역인 경기 개풍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울대 국문과를 중퇴하고, 1970년 여성동아·장편소설 현상공모에서 ‘나목’(裸木)이 당선되면서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에 소설가로 등단했다.

전쟁과 분단 등 한국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청춘을 보낸

고인은 작가의 길로 들어선 이후 자신의 깊은 상처를 되새기며 독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글을 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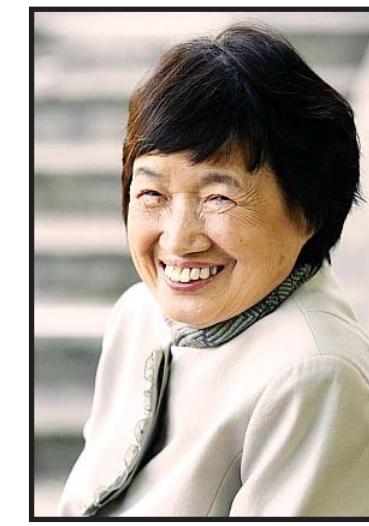
한국전쟁의 상처로 작가가 됐다고 고백한 그는 평생 시대의 아픔과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렸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며, 때로는 자본주의가 만든 황폐한 인간상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했다.

‘영원한 혁액’으로 불렸던 고인은 왕성한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장편 소설로는 ‘워칭거리는 오후’ ‘서 있는 여자’ ‘그해 겨울은 떠ismet’ 등

망’ ‘그 많던 삶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이 있다.

또 소설집 ‘엄마의 말뚝’ ‘꽃을 찾아서’ ‘자문 날의 삽화’ ‘한 말씀만 하소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친절한 복희씨’ 등을 냈으며, ‘나 어릴 적에’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등의 동화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만해문학상, 인촌상, 황순원문학상, 호암예술상 등과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장녀 호원숙(작가),



임권택 감독 전주 명예시민 위촉

전주시는 전주 한지를 소재로 한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를 만든 임권택 감독과 주연 배우 강수연, 박준호씨 등 3명을 전주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임 감독 등은 달빛 길어올리기를 통해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평가했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토지법학회장에 이기우 호남대 교수

이기우 호남대 교수가 (사)한국토지법학회 제14대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토지법학회는 1984년 창립돼 현재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법률과 부동산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 및 관계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



인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 ◆광주지방청 고객지원과장 임종현
- ◆한국김정원
- ◆호남지역본부장 박상수 ▲목포지점장 김태훈
- ▲순천지점장 김성식 ▲전주지점장 최승문
- ◆여수시
- ◇4급 승진 ▲공보담당관 공운상 ▲정보통신과장 김행기 ▲행정지원과장 김종현 ◇5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장 송석주 ▲행정지원과 서부팀장 최양수 ▲회계과 계약팀장 이영택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최문홍 ▲체육지원과 망마관리팀장 양기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강정원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유헌만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김충만 ▲바탕회지원과 지원팀장 서태민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송병구
- ◆구례군
- ◇4급 승진 ▲기획감사실장 배종민 ▲문화관광과장 이강우 ◇5급 승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민호 ◇5급 승진 예정(교육대상) ▲행정담당 심정섭
- ▲기반조성담당 이정수 ◇5급 전보 ▲총무과장 김춘금 ▲재무과장 손재술 ▲의회사무과장 유용운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권성효

류재선 회장 ‘전기사랑 봉사단’에 1000만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류재선(금강전력 대표이사·왼쪽) 회장이 ‘전기사랑 봉사단’에 기금 1000만 원을 편성했다. <사진>

류 회장은 23일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무료로 전기설비 점검과 보수 활동을 평가 있는 ‘전기사랑 봉사단’의 뜻에 동참하고자 봉사기금을 전달했다”며 “협회 회원들도 최근 정기총회에서 자발적으로 특별 회비 5만 원씩을 내 봉사단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2006년부터 8000여 명을 들여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400여戶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활동을 무료로 펼쳤다. 또 연말 연시에는 쌀과 라면 등 생필품(약

100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이웃돕기 성금(약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회는 특히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009년 11월 80여 명으로 구성된 ‘전기사랑 봉사단’을 발족해 매월 한차례씩 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수필가 장정식 ‘詩가 있는 퍼서지’ 출간



지난해 한국수필문학상의 영예를 얻은 수필가 장정식(79·전 광주동부 교육장·사진)씨가 수상작과 그동안의 작품을 엮은 수필집 ‘詩가 있는 퍼서지’(교원사 펴냄)를 출간했다.

세태와 인생 본연의 의미를 고집스럽게 과고들이 온 장씨는 이번 수필집에서도 80년 인생역정의 마음밭에 안겨진 내면의 감정들을 거칠 없이 무단 상상의 언어로 내뱉고 있다.

장씨는 ‘무등산야생화’ ‘우리를 살피게 하는 세상 것들’ 등 종 6부로 나눠 엮은 50여 편의 수필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태와 소소한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특히 5부 ‘凍土에서 닦은 애국심’에서는 철저한 국가관과 애국심에서 우러나오는 나라 사랑의 안타까운

외침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경

순천 출생인 장씨는 늦깎이 수필가로 등단해 ‘나도해의 천백일’ ‘북은 의지의 범’ ‘역사의 현장에서’ 등의 수필집을 냈으며 광주문학상과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국제펜클럽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태경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템플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향우회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김진곤)=29일(토) 오후 6시 대인동 흥백식당. 당. 062-228-338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비밀 보장 1577-1389.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경. (사)장애인복지센터 062-5030. 010-4666-2226

▲광주생명의 전화(실장 장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동구 지산동 716-30로 이전(지산교회 옆 교육문화관 1층) 월~금 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인터넷으로 주례신청=검색창에 ‘주례나라’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결혼식에 겸증된 주례선생님을 모실 수 있음(단, 제주도·울산시 제외) www.juree.co.kr, 061-245-3350.

▲프로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이나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개인증후군 등. 010-6392-7137.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 권리옹호센터. 062-239-0420(1577-5364)

▲승무원 상담=각종 상담, 부인 상담 등. 062-671-405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도움이 필요 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으로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토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동구 자원봉사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분야 수지침(2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30~11:30)·페이스북인팅·타투(2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30~11:30)·교육이수 후 전문봉사단에서 활동 가능한자. 선착순 모집. 062-228-1365.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송동현씨 별세 재무(전 계룡건설 부사장)·재석(자영업)·재희(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재길(창업진흥원 부장)씨 부친상 대호(아트몰드 전무)씨 조부상 윤석조(법무부 소재 대표) 빙부상=발인 25일(화). 대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 042-471-1656.

▲임연심씨 별세 임희진(광주시 공원녹지과장)·철진(광